



## 2030 미래사회 및 직업생활의 변화와 교육적 접근 방안

---

저자  
(Authors)

장주희

출처  
(Source)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 2014.11, 35-51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가정과교육학회](#)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508809>

APA Style

장주희 (2014). 2030 미래사회 및 직업생활의 변화와 교육적 접근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35-51.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94.95.123  
2016/03/28 17:5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2030 미래사회 및 직업생활의 변화와 교육적 접근 방안

장주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 목 차 〉

- I. 미래와 미래연구
- II. 미래연구방법
- III. 사회변화와 미래의 직업생활
- IV. 미래의 인재상과 교육의 방향
- 참고문헌

### 요약

이 글은 2014년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미래사회 변화와 미래의 직업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미래변화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래연구의 개념과 목적, 주요 미래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직업생활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미래, 미래연구, 미래연구방법, 직업생활, 미래를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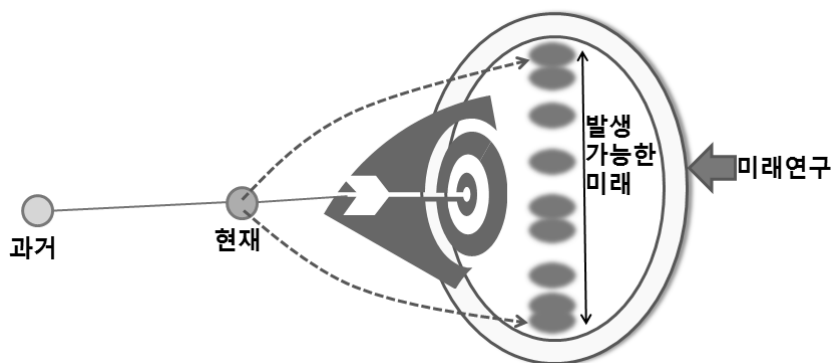
## I. 미래연구

미래(未來)란 글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 현재 이후에 발생할 그 무엇이다. 현재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즉 미지(未知)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알 수 없다는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본고에서는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이 또 미래의 삶에, 그리고 사람들의 직업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형체를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그 전에 먼저 미래연구는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 1. 미래연구의 개념

미래연구를 하는 목적은 당연히 미래를 알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발생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미래’의 속성 상, 미래를 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결국 미래연구는 이게 미래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만한 미래, 발생 가능한 미래의 무수한 모습들을 포함하는 큰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림 1] 미래연구의 개념

이런 큰 그림은 무얼 가지고 그리는가. 그 그림의 재료는 놀랍게도 바로 인간의 사고, 지성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루뭉술하게나마 미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생각들이 있다. 이것을 꺼내어 모으고 다듬어서, 이러한 미래가 올 것도 같고, 저러한 미래가 올 것도 같다는 식으로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미래연구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그렇게 애매한 그림을 그려 준다는 게 과연 무슨 쓸모라도 있는가. 둘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생각일 뿐, 과연 믿을만한 재료인가.

## 2. 미래연구의 필요성

미래연구(futures study)에서 미래는 단수인 미래(future)가 아니라 복수인 미래(futures)이다. 그 이유는 미래의 속성 상 점쟁이처럼 하나의 가장 일어날 것 같은 미래를 집어주는 것은 그다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일어날 것 같은 미래를 알려줬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렇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아니 그 이상의 일어날법한 미래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적어도 그 중 하나, 어쩌면 그 중 두 가지의 중간쯤 되는 미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미리 얘기해 줌으로써, 이런 미래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끔찍한 미래가 안 오게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미래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애매한 그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표 1〉 미래연구의 목적

결과 유추	현재 벌어진 사건, 행동, 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
조기 경보	사건이 벌어지기 전 문제를 파악해 경고하고 제때 피하는 것
선제 대응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
미래 비전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

자료: 황혜신 외(2009) 재구성. 슬로터(Richard Slaughter)가 제시한 미래연구의 유형

## 3. 미래에 대한 생각의 탐구

그런데 하필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한다니,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분명 그렇다. 물론 생각만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데이터도 모으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고 논리적인 추론도 해보고 다양한 미래연구방법들이 있다. 그렇지만 하와이대학의 유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어쨌든 비슷하고, 어떤 미래연구이든지 이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미래연구의 목적 중 하나로 미래 비전의 제시를 들었는데,

미래 비전의 제시야말로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에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가 개입되게 마련인 것이다. 한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 간극이 좁혀질 때라야만 모두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관념론적인 논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표 2〉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지속 (Continued Growth)	현재의 위기와 기회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임.
붕괴 (Collapse)	전쟁, 경제공황, 환경오염, 자원고갈,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등 다양한 몰락과 붕괴가 일어날 것임.
통제 (Disciplined or Conserved Society)	이렇다 할 발전이나 퇴보 없이 사회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임.
변화 (Transformation)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사라지고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가치에 기초를 둔 변화된 사회가 올 것임.

자료: 김현곤 외(2009) 재구성.

## II. 미래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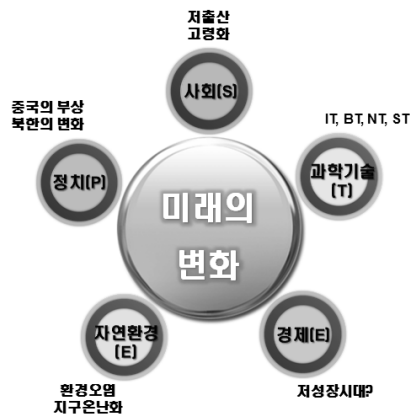
시계를 잠깐 돌려 17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97년 초겨울, IMF를 기억할 것이다. 불과 몇 달 만에 나라는 빗더미에 앉았다. 국민들은 사회교과서에서나 한번쯤 들어보았음직한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에서 돈을 빌리려고 우리나라 경제의 수장이 해외순방 중이라는 뉴스를 연일 접했다.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장롱 속에서 금반지를 꺼내서 성금을 내려 나온 행렬이 줄을 잇는다. 합격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신입사원들은 오래지않아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낙담한다. 구조조정이 유행어가 되고 대학은 졸업을 늦추겠다는 학생들로 몸살을 한다. IT 기술을 배워 빠르고 쉽게 취업해보라는 광고가 지하철 여기저기에 붙는다.

그런데 만일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아시아의 어느 지역, 유럽의 누군가는 그런 낌새를 이미 알아채고 있었다면? 그리고 한국의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행동에 나섰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 1. 환경스캐닝

모든 미래연구의 출발점은 환경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이다. 미래 학자들은 어떤 사회의 미래를 연구하려면 먼저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들여다보라고 한다. 환경스캐닝은 본격적인 미래 연구 이전에 먼저 외부 환경을 스캔하여 변화의 신호(signal)를 찾아보는 단계이다. 예컨대, 금융위기가 오기 몇 개월에서 수 년 전에 이미 저 멀리 태평양 너머 어디에 서는 조만간 한국에 태풍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을 것이다. 미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사건들을 파악하고 도처에서 크고 작은 소리로 울리고 있는 경고음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환경스캐닝이다.

미래학자들이 환경스캐닝에 주로 사용하는 틀로 STEEP라는 것이 있다.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ecology), 정치(politics)가 그것이다. 이 대표적인 다섯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 변화의 트렌드와 떠오르는 이슈를 찾아내어 미래연구를 수행할 준비를 한다.



[그림 2] 환경스캐닝의 예

다시 IMF 구제금융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소위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는 큰 걱정이 없었다. 대학생들이 대학의 낭만을 즐기며 학점이니 취업준비는 고민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졸업하기가 무서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때처럼 ‘경제’라는 것이, 국력이라는 것이 개인 한명 한명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낀 적이 있었던가. 이렇듯 사회 어느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곤 한다. 하나의 요인과 다른 요인의 관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미줄 같이 복잡한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이 또 미래학자들이다.

## 2. 퓨처스휠과 인과지도

퓨처스휠은 간단히 말하면 구조화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다. 미래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 사건, 이슈들에 대한 생각을 조직화하여 그림으로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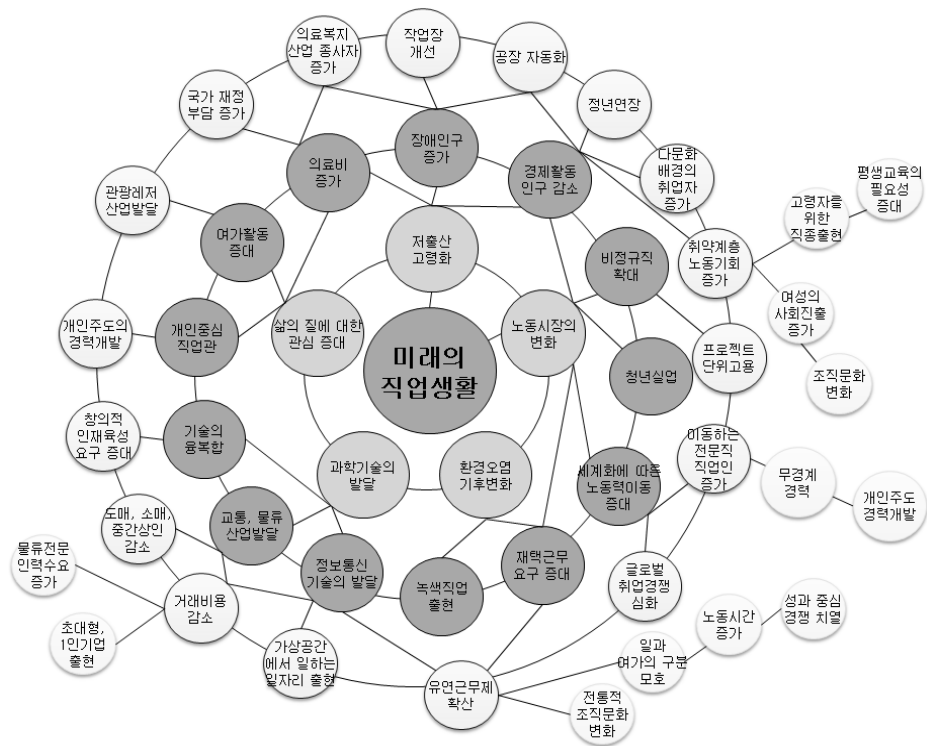
하나의 미래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또 그 일은 어떤 일에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2차, 3차의 파급효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그림 3]은 ‘2030년 미래의 직업생활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에 대한 퓨처스휠이다. 환경스캐닝과 델파이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2030년 미래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섯 가지 동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를 도출하였다. 이 동인들은 가운데 있는 미래의 직업생활을 감싸고 있으며, 동인들로부터 다시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다.

한편, 인과지도는 미래연구의 대상이 속해 있는 전체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시스템 사고를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란 전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실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김동환,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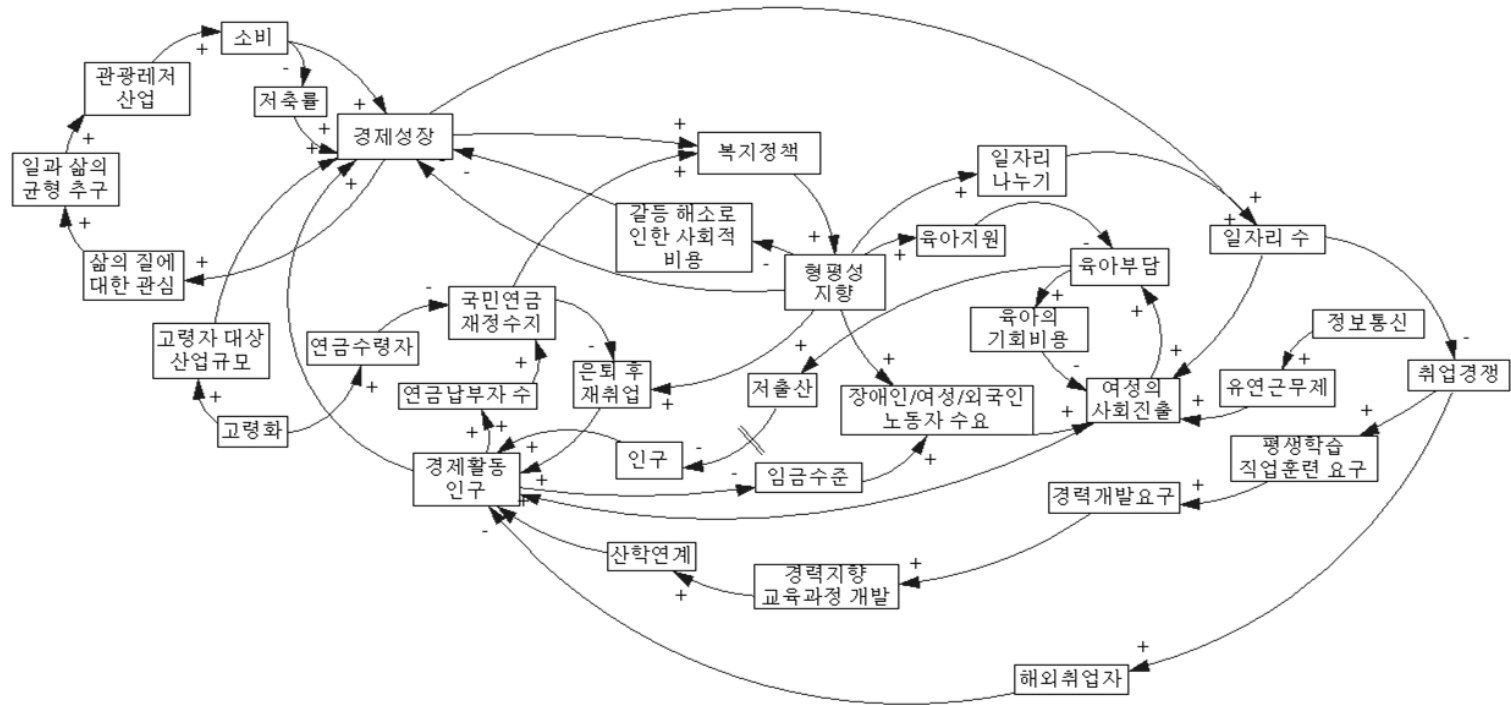
[그림 4]는 2030년 미래의 직업생활에 대한 퓨처스휠에서 발견한 변인들을 재검토하고,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리해 표현한 인과지도이다. 예컨대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관계), 이것은 연금납부자의 수를 높게 하고(+관계),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향상시켜(+관계), 복지정책에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관계)할 것이라는 논리가 담겨있는 것이다.



출처 : 장주희 외(2013), p.48

[그림 3] 미래의 직업생활 퓨처스휠





출처 : 장주희 외(2013), p.49

[그림 4] 미래의 직업생활 인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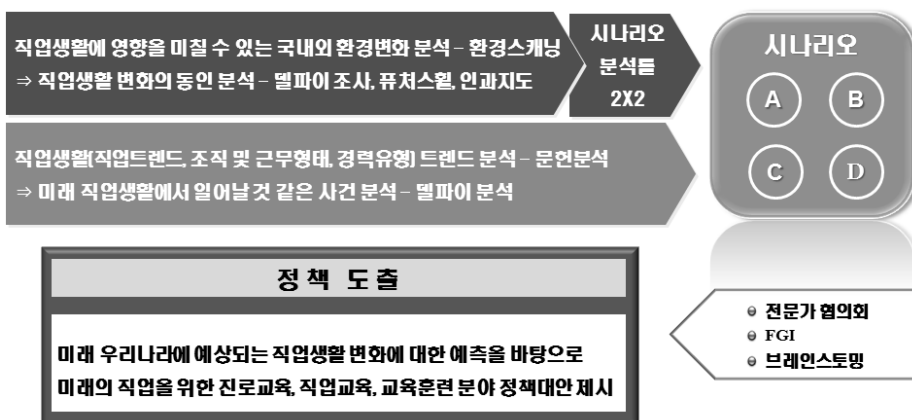
### 3. 델파이 방법

델파이 방법은 미래연구에서 연구 주제의 현재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을 때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 후 몇 번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델파이 패널의 전문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델파이 방법을 사용한 미래연구의 예로 다음 장에서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 III. 사회변화와 미래의 직업생활

이 장에서는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중 특히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핵심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는 미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탐색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직업생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환경스캐닝, 델파이조사, 퓨처스휠, 인과지도를 통하여 시나리오 분석틀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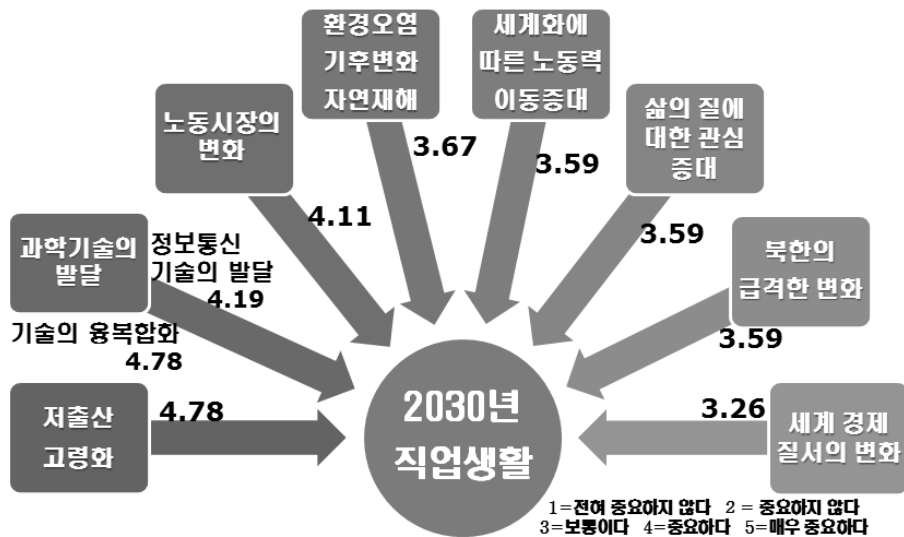
[그림 5]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의 연구방법

드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문헌분석과 델파이조사를 통해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사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시나리오로부터 전문가협의회와 FGI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 2030년 직업생활 변화의 동인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에서는 미래, 직업, 진로교육, 직업교육 등 관련 전문가 27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동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그림 6).

전문가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2030년의 직업생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술의 융복합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그 다음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세계화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북한의 급격한 변화도 2030년 직업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6] 2030년 직업생활 변화 동인별 중요성

## 2. 미래의 직업생활

직업생활을 ‘개인의 일과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직업, 고용 및 근무형태, 일터의 조직 형태, 커리어의 유형, 삶에서 일이지는 가치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보고, 직업트렌드, 조직과 근무형태, 커리어의 유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미래의 직업생활의 모습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은 2030년의 직업트렌드로서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욕구를 디자인에 접목한 감성디자인의 확산을 꼽았다. 다음으로 해외 인재들과의 취업 경쟁 심화, 의료 및 복지 관련 직업 종사자의 증가 등을 꼽았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홈스쿨, 가상학교의 확산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 역할보다는 학습 코디네이터, 고민 상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여성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떠오름에 따라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직업들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개인관리 직업이 발달할 것이라는 전망과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개인관리 직업으로는 개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물건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공간 활용과 환경을 개선을 도와주는 정리수납컨설턴트, 고객의 체중감소와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비만관리컨설턴트, 피부와 몸매 등 몸 전체를 관리해주는 에스테티션 등을 들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거래하면서 중간상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으며, 의사나 변호사 등 전통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영향력이 퇴조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조직과 근무형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 지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조직문화도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유연근무의 확산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며,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동하는 직업인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3〉 2030년의 직업트렌드

문항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사람들의 전신적 감성과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성디자인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	4.67	0.68	96.3
글로벌 노동시장의 개방 가속화로 국내 취업자들은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인재들과도 취업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4.67	0.62	92.6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의료 및 복지 관련 직업 종사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4.41	0.75	85.2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제2, 제3의 커리어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여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이 출현할 것이다.	4.22	0.89	77.8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재 일자리의 다수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대체할 것이다.	4.07	0.73	77.8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홈스쿨과 가상 학교가 확산되어 전통적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3.93	0.96	77.8
여성이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서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이 증가할 것이다.	3.85	0.77	70.4
전문직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와 같은 비전문 직종이 동시에 증가하여 직종의 양극화 현상이 예상된다.	3.81	0.68	81.5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직접 사고파는 시대가 도래하여, 도매·소매상·중간상인들 다수가 사라질 것이다.	3.81	0.83	74.1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통적 전문직은 직업인 수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여, 이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의 퇴조 현상이 뚜렷할 것이다.	3.74	0.81	74.1

\* 2030년까지 일어날 것 같은 정도를 조사한 값임(1=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2=일어날 것 같지 않다, 3=보통이다, 4=일어날 것 같다, 5=반드시 일어날 것 같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계화와 자동화를 가져와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을 제외한 단순한 일들은 더욱 더 기계에게 맡기거나 임시직, 계약직을 채용하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발달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하던 과거에 비해 일이 삶의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산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노동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표 4〉 2030년의 조직 및 근무형태

문항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기업은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을 상시 인력으로 고용하기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로 필요할 때만 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4.44	0.51	100.0
여성의 전문직(고급 공무원, 대기업 임원, 법조인, 의사, 교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전통적 조직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4.26	0.71	92.6
자유로운 출퇴근과 재택근무, 원격근무, 모바일 워크 등이 확산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되어 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4.19	0.79	85.2
프로젝트를 따라다니며 한 도시 또는 국가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다른 도시 또는 국가로 이동하는 전문직 직업인이 증가할 것이다.	4.15	0.66	85.2
수직적, 위계적 조직형태를 벗어난 수평적 조직형태가 보편화될 것이다.	4.00	0.78	77.8
창의성과 유연성의 중요성 증대,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이나 1인 기업의 형태가 각광받을 것이다.	3.89	0.80	77.8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산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3.74	0.71	66.7
Second Life와 같은 가상공간 속에서 일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와 근무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3.59	0.97	51.9

\* 2030년까지 일어날 것 같은 정도를 조사한 값임(1=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2=일어날 것 같지 않다, 3=보통이다, 4=일어날 것 같다, 5=반드시 일어날 것 같다)

2030년에는 커리어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생에서 어느 일정 시기에만 교육을 받고, 어떤 정해진 시기에 노동을 하고, 은퇴 후 주로 여가생활을 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일, 학습, 여가에 참여하는 현상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았다. 국가나 회

사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며, 한 직업, 하나의 기업에서 쓸모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기업의 경계만이 아니라 국경까지도 넘나드는 무경계 경력을 갖는 시대가 온다. 고소득이나 남들이 알아주는 사회적 명성보다도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이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직업을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직업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직업생활보다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그 밖에도,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규학교의 교육체계가 바뀌어 경제활동 진입 연령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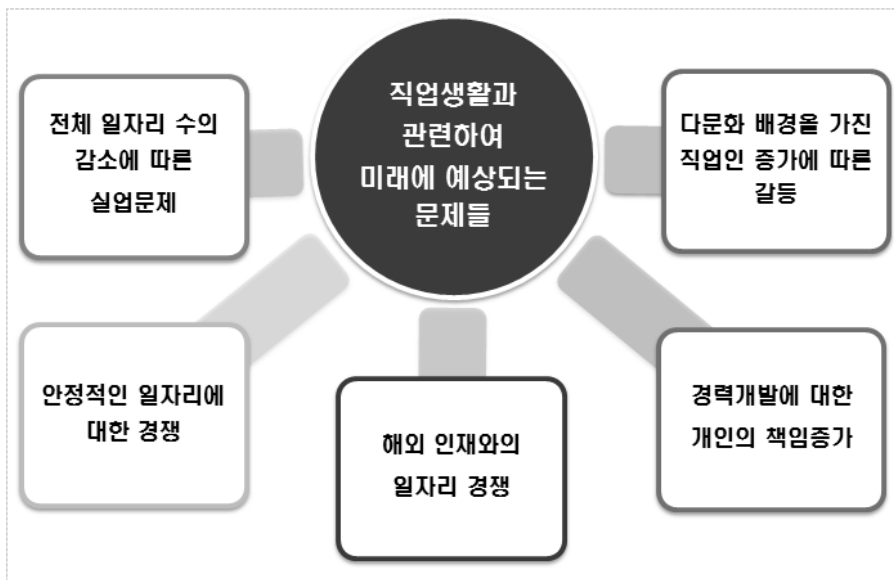
〈표 5〉 2030년의 커리어의 유형

문항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개인이 생애 일정한 기간에만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학습-일-여가'에 참여하는 일이 보편화될 것이다.	4.81	0.40	100.0
경력개발은 국가와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4.19	0.74	88.9
개인의 직업생활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과 여가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성과중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4.15	0.91	81.5
개인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 또는 국가의 경계까지도 넘나드는 무경계경력(boundaryless career)을 갖게 될 것이다.	4.00	0.62	88.9
조직중심의 직업관인 성실, 헌신, 책임 등은 개인 중심의 직업관인 자기만족, 자기 가치실현 등으로 전환될 것이다.	4.00	0.55	85.2
개인은 현재 자신이 수행하는 하나의 업무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직무와 관련된 산업 전반을 이해하는 멀티 플레이어, 즉 다기능 전문가가 되는 것이 경력개발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3.93	0.78	74.1
개인은 일생 동안 수차례 순차적인 직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3.85	0.82	66.7
직업생활보다는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될 것이다.	3.74	0.86	70.4
경제인구 감소에 따라 정규학교 교육체계가 바뀌어 경제활동 진입 연령이 낮아질 것이다.	2.93	1.17	37.0

\* 2030년까지 일어날 것 같은 정도를 조사한 값임(1=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2=일어날 것 같지 않다, 3=보통이다, 4=일어날 것 같다, 5=반드시 일어날 것 같다)

#### IV. 미래의 인재상과 교육의 방향

앞서 2030년이 되면 직업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본 것과 같이 미래사회의 삶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금보다도 더 심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예고되며,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몇 센티미터는 더 높아질 미래,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웬만한 일은 로봇이 척척 해내고, 정규직이라는 말은 이야기책 속에서나 읽어보게 될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자.



[그림 7] 미래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들

이와 같이 미래 직업생활과 맞물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의 역할도 부각된다. 교육은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하며, 이를 위해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 역량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



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직업 환경의 변화를 규명하여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술의 융복합화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직업세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자동화로 인해 미국에서는 향후 20년 내에 47%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rey & Osborne, 2013). 로봇은 자동차 조립이나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화재현장에서, 수술실에서 사람이 하던 일들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3D 프린터 수리원, 3D디자인 강사 등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할 것도 예고된다(김동규, 2014). 앞으로 다가올 일자리 감소의 미래세상에서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직업세계의 변화는 빠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수십 년 전 부모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부터 진로 직업상담교사의 중·고등학교 배치 등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이 아는 직업 수는 많지 않고, 희망직업은 교사, 연예인, 의사 등 일부 직업에만 쏠려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과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고, 창직과 창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더 더 부분에서 더 많은 교육적 투자가 요구된다.

둘째, 미래의 역동적인 커리어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커리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하면서 다음번 일을 준비해 일생에 걸쳐 여러 개의 직업을 옮겨다니고, 일을 찾아 어디로든 이동하는 등 역동적인 커리어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역동적인 커리어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기부터 체계적으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선택지를 넓혀준은 물론,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하나의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사회의 변화를 재빨리 감지해 내고 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즐기는 마음가짐,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다

양한 문화를 관용하고 협동하는 능력, 평생 동안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평생학습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 등이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되는 역량일 것이다.

한편, 교사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교사 스스로 다양한 지식을 찾아 교육자료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생애설계를 돕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수준의 인력수급과 맞물린 교육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을 미리 계획하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삼년, 오년마다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도입 몇 년 만에 폐지하는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끝어나가서는 안 된다.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해외의 인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수학점수, 과학점수가 높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10년, 20년 뒤에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규(2014). 3D 프린터와 직업세계의 변화. 고용이슈 2014년 3월호, 102-122.
- 김현곤 외(2009). 성공적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 방법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장주희 외(2011).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주희 외(2013).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 미래의 직업생활 분석: 직업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2(4), 41-58.
- 황혜신 외(2009).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1-3권. 법문사.
- Frey, C. B., & Osborne, M. A.(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Retrieved from [http://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The\\_Future\\_of\\_Employment.pdf](http://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The_Future_of_Employment.pdf)